

# 일제만행희생자 위령비 현황

## □ 위령비 현황

명칭	일제만행희생자 위령비	건립일자	1993. 8. 28.
위치	동래구 온천동 우장춘로 155(케이블카진입부 우측)		
규격	0.85m × 0.66m × 2.70m	구조	화강석, 대리석
건립주체	희생자위령비건립위원회	관리기관	금강공원사업소

## □ 위령비 정면




일제만행희생자 위령비

日帝만행犧牲者慰靈碑



단위: Cm (A) 270 (B) 268 (C) 240 (D) 44.5 (E) 85  
(F) 65 (G) 175 (H) 00 (I) 00 (J) 66 (K) 97

## □ 위령비 좌측면



아직은 어둠이다 밝혀져야 할 것이 가려진 이 허위의 빛은 빛이 아니다. 죽은이들은 죽어 한세기가 다되도록 눈감지 못한 채 원통함으로 구천을 떠돌고, 죽인자들은 대명천지 펄펄하게 살아 고개쳐들고 설치는 여기는 아직 식민의 땅이다. 우리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나들이 우리들의 이름과 조국의 이름을 부르며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야 했는지 어떻게 죽임당했는지도 밝히지 못한 우리는 참으로 못난 후손들이다. 어느 이름모를 하늘 아래서, 캄캄한 굴속에서 맹수와 병마가 우글거리는 밀림에서, 더러운 침략자 제국주의 일본의 군복을 덮어쓰고 손톱에 피멍이 지며 죽어간

## □ 위령비 후면



영령들의 시신은커녕 이름조차 거두지 못한 우리들은 조국은 아 아 부끄러운 죄인이다 만시지란이나 이 참회의 눈물을 모아 뉘우침으로 칼날을 세워 처참한 죽음의 진상과 굴절된 역사의 진실을 기필코 밝혀야 한다는 의지를 모아 여기 구천을 해매는 원혼들이 평안히 참드시길 빌어 올리며 우리 배달저레의 정통성과 당당한 민족혼의 계승을 위하여 그 실천의 뜻대로서 오늘 우리는 삼가 이 위령비를 세운다 이 땅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비 앞에서 어제는 더 앞선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흘러도는 것이며 또한 오늘의 역사는 어제로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역사로 피어나는 것임을 깊이 깨우침 일이다

명예고문 이기백 단군기원 사천삼백이십육년팔월 스무아흐렛날 백신종 짓고 쓰다 추진위원장 황백현 부위원장 김용만 완건우 김옥상 조양재 김홍권 황흥순 고문 김우곤 박정인 이장희 안삼수 한오작 최종락 김문숙 지도위원 이광희 백신종 손태인 이태권 조상태 김재규 정인조 김영도 최기복 최달웅 곽용택 강정주 김현수 송철호 정용균 강성길 이봉재 유재성 김병구 홍순우 성종대 배갑삼 추진위원 김순곤 문원범 이정순 김원일 황영층 김경수 황병은 박문자 이학준 남영옥 황동필 김선기 박노국 하만성 이정호 이남이 황기현 홍봉양 조현기 김진숙 황구영 이성호

## □ 위령비 우측면



이수덕 김순열 정종용 최학성 이경안 최영호 김순덕 서원복 김종건 남정문 장종식 황재철 김귀자 김묘진 박태원 양만수 김인재 정순옥 소순이 송덕근 김익환 김경두 송옥심 황송현 조영란 이삼열 황철성 서분이 김정철 이상룡 박기동 김원진 이병훈 한영래 김지경 황철주 김춘식 차주열 전화중 권옥희 송면규 김기동 하경탁 채옥주 이현창 김두영 이명원 이찬열김갑순 이석순 김이기 이강자 공성근 이호 한개향리회 김이애 윤경석 박현우 김호범 김상일

남북희 고영래 황지현 이차순 박기자 최인출 이상록 동순옥 김재호 유덕수 하숙현 김창호 안재영 김명화 박재순 김형서 박덕재 김명곤 윤영희 송영현 이종순 박인효 배동찬 신진갑

# □ 위령비 전경 및 위치도

